

**캐터필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대성하이텍(DAESUNG Hi-Tech)**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사 례 연 구 주 관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팀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사 례 연 구 책 임 자	(주) 디리아	배현기	hkbae@direa.co.kr
선 임 연 구 원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안윤지	yunjiahn@hanyang.ac.kr
연 구 원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팀	김지수	913024@kotra.or.kr
감 수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팀	소 라	sora1117@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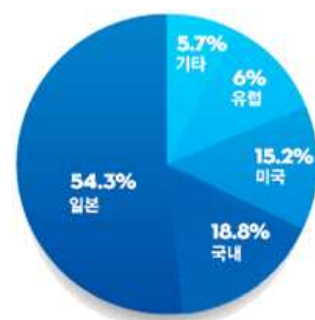
기업소개 - 철저한 품질을 보장하는 대구의 강소기업, 대성하이텍

작은 규모의 잘 알려지지 않은 대구의 정밀부품회사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시도한지 2년 만에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 후 일본 최대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야마자키 마작을 포함하여 40개사에 각종공작기계부품 및 완성기를 수출하고 있다. 사업초기 국내 시장에서 기반을 잡아가는 일반적인 회사들과 다르게 이곳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고, 현재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의 비중을 수출에 두고 있다. 작지만 소리 없이 기초를 다져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대구의 중견 공작기계업체인 대성하이텍이 바로 그곳이다.

대성하이텍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기계부품 전문기업이다. 공작기계, 반도체 장치, 인쇄기 부품 등 기계 산업 전 분야에 부품가공, UNIT 및 완제품 조립까지 생산하는 전문업체이다. 고품질의 혁신적 제품을 일본, 미국, 영국 등에 수출한다. 특히 15년간 일본 공작기계업체에 초정밀 부품을 납품 해온 업력은 단순히 선진 장비를 도입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성하이텍이 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신뢰가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우각 대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한 일본 기업관계자들이 가격만 맞으면 바로 거래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품질과 기술 경쟁력에 있어 최고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대성정공으로 시작한지 2년 만에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97년 야마자키 마작과의 거래를 성공시킨 후,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일본 기업의 수를 늘려갔다. 2001년 대성하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일본시장의 수출 증가로 인하여 꾸준한 설비투자와 인력보충이 이루어졌다. 제품 생산을 위한 조직이 신설되고 2005년 기업부설연구소와, 2006년 제2공장, 2010년 제3공장을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 글로벌 인증(ISO 9001, ISO 140001)을 획득했다.

국가별 매출비중(2012년)



※출처: 대성하이텍 홈페이지

대성하이텍 수상경력



※출처: 대성하이텍

매출의 대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시켜 지속성장을 거듭해오면서 2004년 500만 달러 수출, 2005년 1,000만 달러 수출, 2008년 2,000만 달러 수출 그리고 2011년 3,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성하이텍이 자랑하는 제품은 '제로인(zero in)'이다. 초소형·고속·고정밀도로 동시 5축 가공이 가능한 고속 가공 기계로 IT,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기계제품을 위해 그 부속품을 가공하는 고속가공기는 부품 가공 및 제조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설비다. 독자 개발된 '제로인'은 그동안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도입에 의존했던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설비 투자비를 감소시켰다.

또한 복잡한 다면 입체 형상도 단시간 가공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까다로운 가공도 거뜬하고, 설비 자체의 크기도 기존 가공기보다 작다. 특히 가공 주축을 Built-in Spindle Moter(내장방식)를 채용해 최대 주축 속도 3만rpm이 가능하고 다면 입체 형상도 만들 수 있다. 2009년 10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공작기계전'(EMO MILANO 2009)에 참가하여 세계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IMAC 2012 현장] 대성하이텍, 각종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정밀부품 선보여



대성하이텍(www.topdsht.com)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2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IMAC 2012)'에 참가해 각종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정밀부품을 선보였다. 이 회사는 공차범위가 10micron에서 1micron까지인 정밀기계 부품 공작기계, 반도체 기계 등 각종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스피들, 기어, 하우징, 툴 홀더 등을 제작하고 있다.

.....중략.....

※출처: Global News Network 'AVING, 송민경 기자(www.aving.net), 2012.11.02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2011년을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최첨단 CNC 공작기계부품 UNIT MODULE화 및 반도체 생산 관련장비 개발과 신개념 밀봉도구 애니락, IT융복합응용의료기 및 건조기장비 등의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중 정밀 가공기계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생활용품 '애니락'은 자기만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꿈이 녹아 있는 제품이다. “세상 모든 중소기업 사장과 인터뷰를 해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실행

에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최초’로 만든 제품을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5년, 10년 뒤에는 대박상품으로 크게 매스컴에 나올지도 모르죠.” 2005년 출시된 애니락은 어떤 비닐이라도 끝 부분을 한 번 접고 흠 사이에 끼워 넣기만 하면 완벽에 가깝게 밀폐·방수가 되는 제품이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어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하여 세계 25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표적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품질과 사람이라고 최우각 대표는 이야기했다. “대성하이텍은 8,000여개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하지만 전체 매출은 500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정도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체계적인 품질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예요. 글로벌 기업의 바이어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회사를 둘러보고 쉽게 오케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현장을 둘러보면 정밀한 부품을 뭐든지 맡기면 만들 수 있는 회사, 뭐든지 할 수 있는 회사라는 느낌이 온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17년간 쌓아 올린 하나의 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최고의 품질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써 붙여놔어요. 철저한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직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이예요. 사람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희는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투자도 달라져요. 저희 정도 기업에 일본어를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하는 직원이 16명이나 되니까요. 일본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출처: 대성하이텍 제3공장